

시론



문병채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관공서나 공공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화단도 함께 조성하고 식재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근대 건축이 나타되면서 이들도 낮설은 수목들이 화단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옥형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에는 완전 외래종까지도 들어 있었다. 단지 조경수로서 가치와 미적인 면만 고려해서 화단을 채워왔다. 그것은 현대건축이든 전통 건축이든 구별되지 않았다. 그 결과, 컴퓨터 획일화로 모양도 멋도 없어져서 녹지공간이나 휴게장소로서의 시각성과 가치성이 떨어졌고, 시민들로부터 소외 공간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건물이 획일화되어 가는데 녹지나 수목마저도 특색이 없어져 가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고장만이라도 이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녹지 수목 식재의 다양성은 훨씬 도시를 개성있게 만든다. 공원이나 녹지 조성의 다양성에는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비록 관상수나 경관림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선조들의 지혜와 의미를 지닌 수목들로 말이다. 특히 전통가옥이나 한옥 등을 지을 때는 한번쯤 조상들이 심었던 나무들로 조경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은 어떤 나무를 심었을까? 이 점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잠깐 빌려보자.

첫째, 회화나무를 심었다. 일반 백성이 함부로 심을 수 없는 나무였다. 과거에 합격한

옛 선조들의 조경수를 심자

집에서만 심었던 나무다. 대가(大家)의 뜰에 심어져 있는 까닭이 그런 연유다. 옛날에 판관(判官)이 회화나무 가지를 들고 재판에 임했던 것에서 기인했다. 지금도 새집을 지을 때 회화나무를 심는 풍속이 민간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 자식들의 출세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리고 유두날(6월15일)에는 앞을 냉수에 띄워 먹으며 자녀들 출세를 빌다.

둘째, 예전에 딸을 낳으면 집안에 꼭 오동나무를 심었다. 혼인 때 오동풍(장풍)을 해 주기 위해서였다. 오동나무는 가뭄과 고우며 휘거나 트지 않아서 장롱이나 악기 제작에 으뜸 목재였다. 성장도 빨라 20여년 되면 큰 거목으로 컸다. 또한 봉황새가 앉는 유일한 나무로 집안을 상서롭게 한다고 믿었다. 앞뜰 오동나무에 봉(鳳)이 날라와 앉으면, 그 앞에 학(鶴)이 날라와 춤을 춘다고 생각했다.

셋째, 아들을 낳은 집에는 꼭 대추나무를 심었다. 혼인식 대례상 위에도 대추와 밤을 놓았는데, 대추는 불로장생(정력제)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신랑에게 그 자리에서 먹게 하거나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했다. 첫날밤에 '험내라'는 뜻이 들어있다. 대추나무 목재는 차말하고 단단하여서 방망이나 때배 등 강도 높은 기구에 쓰이기도 했다. 특히 벽초목(靑素木)이라 해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단단하기가 돌보다 더해 도끼나 톱으로도 쉽게 쪼개거나 자를 수 없었다. 대단한 귀목으로 취급됐다.

넷째, 감나무를 심었다. 지금은 여러 우수종이 있지만, 옛날에는 '떡감나무'가 대세였다. 마루에서 봤을 때 가장 상층에는 꼭 떡감나무를 심었다. 마루에 앉아 대문을 봤을 때 오른쪽이 상석이다. 떡감홍시는 제사 지낼 때, 조율사이(棗栗梨)와 함께 상에 올

렸고, 딸이 시집 갈 때는 떡감나무로 '경대'를 만들어 보냈으며, 색상과 문양이 좋고 단단해서 널리 쓰였다. 부모 사랑(은혜)이 깃들려 있는 '물건(흔수품)'이었다. 시집 간 딸은 외롭거나 힘들 때면, 경대를 쳐다보면서 '떡감나무 태'를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위로 받았다.

다섯째, 소나무를 심었다. 사철 푸른 소나무는 예로부터 깨끗한 절개를 상징해서 '선비나무'로 여겼다. 자녀들이 크면서 소나무 같은 절개와 기상을 본 받을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또한, 선조들은 소나무에는 벽사력(邪力)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잡귀를 물리치는 힘을 말한다.

여섯째는 매화나무를 심었다. 벨나비도 없을 무렵에 예쁘게 꽃이 피고, 엄동설한에도 그 향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옛 선비들의 매화 사랑이 유별났다. 매화가 '인고의 아이콘'이어서 그랬던 듯 싶다. 사군자 중에서도 매화를 으뜸으로 생각했고, 꽃이 필 무렵이면 아무리 출고 바빠도 탐매(探梅)의 나들이를 했다. 관공서나 공공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는 그 화단이나 녹지에 위의 선조들이 심었던 수종으로 식재했으면 한다. 현대식 서구형 건물은 몰라도 전통형 건물이나 한옥을 지을 때는 적극 고려했으면 한다.

금년부터는 오동나무를 심어 봉황이 앉게 하고 매화를 심어 고을을 향기로 가득 채우게 하고, 회화나무를 심어서 많은 인물이 배출되게 하자. 또 오동나무를 심어서 혼인이 잘 이뤄지게 하고 대추나무를 심어서 건강하고 강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자. 여기에도 감나무를 심어서 힘든 삶을 슬기롭게 살게 하고, 소나무를 심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자. 이밖에 매화나무를 심어서 어떤 한파가 몰아쳐도 맑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자.

社說

전남 등 부정 수급 농업 공익직불금 허점 개선해야

본보 취재로 무안군 뽕류 불법 성토 필지에 대한 부당한 공익직불금 지급 실태가 불거진 가운데 부정 수급도 해마다 늘고 있다. 표본조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익직불금은 2020년 5월1일 시행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성격이지만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도입 첫 해 2건 뿐이었던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110건, 2022년 120건, 2023년 177건으로 급증했다. 전남에서도 2020년 1건, 2021년 19건, 2022년 35건, 2023년 26건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선 시·군의 신청을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표본조사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전체 필지의 5%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자체의 자체·합동조사 등 사후 관리를 통한 부정 수급

적발 비중은 15.8%(28건)에 불과했다. 반면, 주민 신고는 40.6%(72건), 자진 신고는 33.8%(60건), 수사기관 6.7%(12건), 감사기관 조지 요구 2.8%(5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확인이 대부분이었다.

무안군의 경우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일로 망월리 소재 3필지(7.8ha) 중 1필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직불금이 지급됐다. 농관원 전남지원이 이월 점검을 했으나 일부 경작 여부만 살펴는 바람에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교묘하게 법망을 악용하게 만드는 허술한 구조에 검증도 부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숨겨진 부정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면 불법자를 추가 양산할 수밖에 없다. 직불금 제의 농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눈먼돈'이 아니라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 공익직불금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광역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 결실 기대

교육부의 2024년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평가 결과, 광주보건대·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 초광역 연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올해 대학 통합 뿐만 아니라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함께 혁신 모델을 수립하는 연합 형태의 유형이 도입된 때문으로 동일 계열 전문대가 8월 최종 본지정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한달빛(한반·달구벌·빛고을) 글로벌 보건연합대학'은 전라·경상·충청도를 아우르는 최우수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 아시아 최고의 전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사·교육과정·학사 등 단일 의사결정의 연합스쿨을 운영하고, 광주보건대는 메디휴먼케어 산업을 중점으로 늘·돌봄, 대구보건대는 소재기반 바이오헬스의 헬스케어, 대전보건대는 디지털·바이오치료제 산업을 활용한 바이오·재활 특화캠퍼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광주시·대구시·대전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다짐했다. 협약에는 연합대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자체·대학 간 상호 교류 확대와 행정·정책적 지원, 지역

산업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혁신 전략이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내·외의 벽을 허물고 과감히 개혁하는 대학에 파격 투자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모델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 안팎을 추가하며 2026년까지 모두 30개 내외의 지정이 목표다. 학교당 5년간 약 1천억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으로 관심이 뜨겁다.

광주를 비롯해 3개 보건대의 단일 협치(거버넌스) 사업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 보건의료 분야 아시아 제1의 전문대학 도약 비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지역과 동반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다. 대학의 자체적이고 담대한 노력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모아졌다. 본지정은 물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의기투합을 기대하게 된다.

기고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잘 깎인 연필 처럼”...후반기 담양군의회 개원 다짐

작업을 하기 곤란했다. 이처럼 연필을 잘 깎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연필을 잘 깎으셨다. 지금은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투박한 면도칼로 왼손에는 연필을 쥐고, 오른손에는 칼을 쥐며 몇 분간 쓱쓱 쓱쓱 하다보면 보기 좋게 잘 깎인 연필이 완성되곤 했다.

어릴 적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신기하게만 바라봤지만, 그때의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지금의 저는 아마도 아버지가 '연필을 깎는 것처럼 스스로를 잘 다듬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필통에 잘 깎인 연필들이 가지런히 놓인 걸 보면 공부든 뭐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했다. 요즘 느끼기 어려운 감성이다.

제9대 후반기 담양군의회가 개원했다. 지난 2년 간 9명의 의원 모두는 '정성껏 연필을 깎는 것처럼 스스로를 잘 다듬어 왔다'고 생각한다. 너무 날카롭게만 깎여 스스로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게 의정활동을 펼치던 열정

과 군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무게가 고만하던 뚱뚱한 연필의 흔적과도 같은 우직함이 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다.

9명의 의원 모두가 5만 군민의 '잘 깎인 연필'이 되길 바란다. 필통에 가지런히 놓인 잘 깎인 연필들을 볼 때 항상 마음이 든든했던 것처럼, 잘 깎인 연필 같은 의원들을 바라보며 군민 모두가 든든한 마음을 갖길 소망한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군민과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군민과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후반기 담양군의회는 군민과의 의사소통을 최우선으로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고자 한다.

군민의 관심과 성원은 의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저는 어릴적 너무 날카롭지도 너무 뚱뚱하지도 않게 심은 적당한 길이로 '잘 깎인 연필'을 특히 좋아했다.

요즘에는 연필깎이가 흔하고, 사프터처럼 쓰기 편한 필기도구가 많아 연필을 직접 손으로 깎을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대부분 연필을 손으로 깎아 사용했고, 지금도 손으로 정성껏 잘 깎는 연필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너무 날카롭게 연필을 깎으면 쉽게 부러지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너무 뚱뚱하게만 깎으면 예쁜 글씨, 예쁜 그림을 그리는 정교한

독자투고

아직도 초아나 동이를 무렵 새벽시간대는 칠흑같이 어둡다. 여기에 후미등이나 반흐관이 더럽혀진 차량은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운 정도다. 이런 기상여건에서 자가 운전자라면 한번쯤 어두운 밤길을 운행하다 갑자기 맞닥뜨린 앞선 주행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아찔한 경험을 한번쯤 했을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전방에 분명 아무런 차량 불빛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바로 앞에 진행중인 화물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사고는 바로 이렇듯 한순간 방심과 안전불감증에서부터 일어난다. 필자도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종종 차량 후미등과 반사경이 심하게 퇴색해 있거나 먼지로 뒤덮인 채 운행중인 화물차량과 조우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후미등이 아예 켜지지 않았거나 아예 파손된 채 너털너털 거리는 경우도 있고 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해 시커멓게 도색돼 있는 차량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속

후미등 고장방지 차량 사고위험 2배 크다

도로 주행하더라도 갑자기 마주치게 된 시커먼 화물 차량과의 추돌사고는 피할수 없게 된다.

이렇듯 차량 후방에 설치된 안전등화 장비가 미흡할 경우 그만큼 내 차량의 위치를 알리기 어렵게 돼 후미차량은 근접한 거리에 이르러 비로서 차량을 인식해 뒤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후미등이 오염된 채 운행하는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뒤차는 빨간 불빛의 시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후미등이 정상 작동하는 화물차가 급제동할 경우 따라가는 후속차량의 조작 반응 시간은 주간 2.1초, 야간 2.08초였으나 후미등이 망가진 화물차가 급제동할 경우 후속차량의 조작 반응 시간은 4.03초로 거의 배에 가깝다고 한

다. 이는 자동차가 시속 80km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20m 이상을 더 주행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하니 가히 사고는 한순간이라는 말이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야간운전을 할 때 자동차의 후미등은 뒤따르는 차량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운전자 특성상 야간에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앞서 진행중인 차량 후미등이나 반사경으로 상대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화물차량 운전자는 수시로 차량 후미등과 반사판을 세척해 나와 타인의 안전운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야간 운전 시에는 조명등이 거의 생명이거나 마찬가지다. 교통 안전은 사소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김덕형·무안경찰서 통탄치안센터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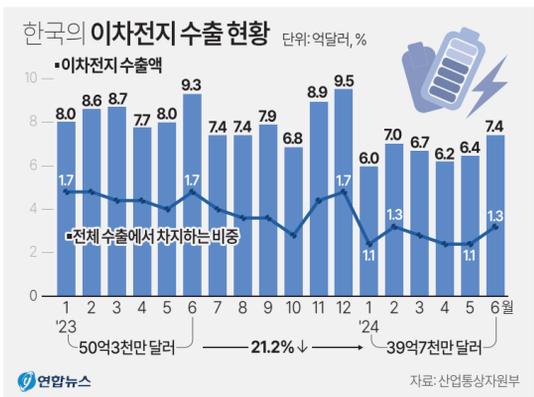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캐즘' 빠진 이차전지 수출 바닥 찍었나...두달 연속 증가세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부진했던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이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증가해 이차전지 수출이 저점을 지나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는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2% 감소한 39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 정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상반기 이차전지 수출은 한국의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철강(-10.2%)과 함께 부진했다. 하지만 월간 흐름을 보면 이차전지 수출은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6월 이차전지 수출은 7억4천만달러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이차전지 수출은 지난 4월 6억1천800만달러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5월 6억4천400만달러, 6월 7억4천만달러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차전지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5월 1.1%로 떨어졌지만, 6월에는 다시 1.3% 선에 올라섰다.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 현황 단위: 억달러, %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